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5월 6일 (제94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말대로 된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높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시 139:2~4).

나는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다 알고,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절대 막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도,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2013년 제1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평화통일이 되겠어?’ 했다. 하긴 그간 남북의 관계는 평화는 고사하고 더욱 악화일로로 걸었다. 전쟁위기설까지 나돌았으니 그들의 말이 맞는 듯 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들린 대로 행하리라’(민 14:28)는 말씀을 믿고 ‘반드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이 곧 온다.’고 말을 뿌리며 9차례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열고 기도했다.

지난 27일, 우리의 말과 생각이 열매를 맺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았고, 몇 달 전만해도 가히 상상할 수 없던 비핵화선언이 발표되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의 초석이 놓인 것이다.

그렇다. 말을 잘해야 한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다. 살고 죽는 것, 행복과 불행, 천국과 지옥이 다 내 말에 달려있음을 안다면 말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고 말씀하셨다. ‘온전하다’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다(약 3:2). 그러므로 열린 입이라고 막 내뱉지 말고, 말을 하기 전에 열 번 생각하자. 말은 생각이라는 주머니에서 나오니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하지 말자. 그래서 자기 말에 얹히고, 자기 말에 잡히는 자가 없었으면 한다(잠 6:2).

품위와 품격이 있는 그릇에 예절이라는 음식을 담는다면 자연 말도, 생각도 아름답고 고상하게 되리라.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할 당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안전운행

1972년 미국의 닉슨대통령과 중공의 마오쩌둥 주석이 만나 미중수교가 이루어졌을 때, 세계 언론들은 지구촌에 동서화해의 데탕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대서특필했지만, 실상 그 염원이 이루어진 것은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하고, 구 소련이 붕괴되는 1991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무수한 우여곡절이 있었어도 한번 시작된 그 해빙의 무드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우리 한반도로 시야를 돌려보면, 2000년에 남북 최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8년이 지나고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곧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데탕트의 역사와 어찌 그리 시차가 맞아떨어지는지, 그래서 더욱 이번 회담들에 거는 기대가 큰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나는 확실히 믿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 기도를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믿었기에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9차에 걸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이어온 것은 평화통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내가 수많은 집회들을 통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온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이 성령이 분명한 사실임을 확실히 입증하여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길 잃고 방황하며 지옥으로 행하는 수많은 영혼들

지 앞에서 너를 시인해주신다’(마 10:32)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인 말은 해서도 안 되고 귀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입으로는 판 소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여기에는 여야도, 어떤 이념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온 한반도 평화정착과 피한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날, 김일성 광장을 평화의 광장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않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신뢰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절대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 닫을 자가 없다’(계 3:7)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교단이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9차에 걸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하든지 이번에는 반드시 남북에 확고한 평화체제가 정착될 것을 믿는다. 목사님은 지난주일 2부 예배부터 나오셔서 이점을 거듭 강조하셨다.

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그 현장에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요 11:42)과 같은 이유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다고 믿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한 하나님입니다(창 18:32).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우리 예수중심교단이 있는 바에야 결코 이 땅에 다시는 재앙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는 결코 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쏟아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민 14:28)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

호를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봅시다. 반드시 꿈꾸는 듯한 기적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방심은 금물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악은 성실하다. 절대 쉬지 않는다. 틈만 있으면 반드시 비집고 들어와 썩기를 박는 놈이다. 마지막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안전운행 해야 한다.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5:22~32)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기쁨을 알라

누가복음 15장에는 양의 비유, 잃었던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 대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주인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잃었던 아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잃었던 아들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탕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직 철없고 안타까운 아들일 뿐, 탕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여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곧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울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아버지 쪽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거부였습니다. 사람을 풀어 아들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탕진하면 돌아온다는 것을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문이 닫혀있으면 행여 돌아설세라 항상 문을 열어놓았고, 매일 문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상거가 먼데'라는 말은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동네 어귀까지 살펴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흡사 거지 행색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에 입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결은 멸망과 불행이요 협력은 성장과 행복이다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아들입니다. 탕자의 형 말입니다. 그는 기쁨에 겨워있는 아버지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연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대"(눅 15:29~30)라며 화를 냅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

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눅15:32).

그렇습니다.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버지, 송아지 한 마리 더 잡읍시다. 매일 문 밖에서 동생 기다리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즐겁게 사세요." 해야 옳습니다.

이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4월 27일,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늘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던 북한

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시126:1~3)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에 초를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 속았냐?', '쇼하는 거다.' 이러면서 혹자들은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높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동생이 돌아왔으면 형제로서 무조건 열싸안아야 옳습니다. 돈보다 동생이 더 귀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북한의 소행이 꽤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손을 내밀었으니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심통 낼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남쪽에 있는 영혼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영혼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찌

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듯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남북의 물꼬가 터져야 그 물꼬를 타고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물줄기가 강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점차 물줄기가 굵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줄기를 타고 우리는 북쪽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갔던 나라에 흉년이 들었듯 북한이 심히 곤핍합니다. 그들이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위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자를 발로 차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할

세에서 버티는 소를 외양간에서 끌어내려서 외양간에 불을 지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고 유엔제재 등 강수를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쥐엄 열매를 먹는 북의 주민을 보시고 마음인들 편하셨겠습니까? 그 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대결의 구도로 가면 승자는 없고 오직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너 죽고 나 죽고 이 판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잃을 것이 없는 자와 싸우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막판에 몰린 자에게 단 하나 남은 자존심을 발로 밟으면 감정만 사나워지고, 그 결과는 서로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뽀자기네끼리 싸울 때는 독을 품지 않는다는데, 한 민족끼리 왜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대결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

고"(막3:24~25).

이제 우리는 협력의 구도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으니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의 다른 말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아무리 차가운 방도 계속 불을 때면 언젠가 따뜻해집니다. 얼음물도 뜨거운 물을 붓다보면 미지근해지고, 더 부으면 결국 따뜻한 물이 됩니다.

제일 값진 것은 사랑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다

여러분, 공간에서 인심 나는 법입니다.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없으면 자격지심이 발동하고, 없으면 괜히 심통 나고, 괜히 곡해하게 됩니다. 북한이 딱 그 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가진 자, 힘 있는 자, 여유 있는 자가 먼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더욱 사랑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것이 다네 것이다. 고맙다."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부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 장수고, 한 아들은 얼음 장수였습니다. 이 부모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날이 좋으면 안 팔릴 우산 장수 아들이 걱정이었고, 날이 흐리면 얼음이 안 팔릴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늘 자신들을 걱정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다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날이 좋은 날은 둘이 합해 얼음을 팔았고, 비 오는 날은 함께 우산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입도 늘었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외줄보다 삼 겹줄이 강한 겁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이 나라를 두고 줄다리기 하던 자들이 다시는 텃비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넘치게 주심은 없는 북한과 나누고, 그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 큰 계획,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김일성광장을 평화의 광장이라 부를 것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기도성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 믿음입니다. 그러니 계속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특히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당신이 최고의 애국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서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탐욕과 공포

시장 상황이 좋고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신중함 따위는 잊고 매수를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다 혼란의 시기가 도래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를 잃고 매도를 서두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심리변화는 마치 시계추의 움직임을 닮았습니다. 시계추는 거의 항상 아치의 한쪽 끝을 향해, 또는 반대쪽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계추가 어느 한쪽 끝에 다다를 때마다 주는 곧바로 다시 중심을 향해 움직이지요. 사실상 한쪽 끝을 향해 가는 움직임 자체가 역방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렇듯 투자시장은 호황과 침체 사이, 고평가와 저평가 사이와 같은 시계추의 움직임을 따릅니다. 투자자 심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보다는 양극단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시계추는 ‘탐욕’ 대 ‘공포’를 토대로 움직입니다. 탐욕과 낙관주의가 한데 어우러지면, 사람들은 높은 리스크 없이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희망하고, 유행하는 주식에 비싼 가격을 지불합니다. 혹시 가치가 조금이라도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식을 보유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비현실적이었고, 리스크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탐욕의 반대는 공

포로, 투자세계에서 공포는 논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리스크 회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포 역시 탐욕과 마찬가지로 과잉을 의미합니다. 공포는 지나친 걱정으로 투자자로 하여금 필요할 때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점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계추의 한쪽 끝, 즉 가장 암울한 시기에 앞으로 상황이 더없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력, 객관성, 또한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낮은 리스크로 흔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시장의 움직임에는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시계추가 한쪽 방향으로 영원히 움직일 것이라고, 또는 그 끝에서 계속 머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반면 시계추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에 한 눈팔지 말고 사슴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과욕은 소탐대실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이겨낸 후 우리가 마주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다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일 것입니다.

이미경

lmkwdf@hotmail.com

:: To Be Succeeded ::

인내로 결실하는 삶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수용된 한 젊고 유능한 유대인 외과의사는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로 끌려가는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보았다. 자신도 머지않아 동일한 제물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강제노역 시간에 몰래 주운 깨진 유리 조각으로 아침, 저녁으로 면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오후가 되면 처형자를 고르던 나치군인들은 피가 묻어날 정도로 파랗게 면도된 외과의사의 턱을 보고 차마 그를 가스실에 보내지 못했다. 결국 외과의사는 나치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조급함이다(딤후3:4).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뒤에는 조급한 언행심사가 깔려 있다. 기도 실컷 해놓고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 또한 두 마음을 품거나 오래 참지 못하고 포기해서이다.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되 반드시 오래 참

음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한다(눅8:15). 실제로 아브라함은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고, 욥도 인내함으로 주께서 주신 창대한 축복을 받아 누렸다. 요셉 역시 꿈을 받은 후 고난 가운데 참음으로 꿈을 이루었다. 지금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들으면 인내하기 어렵다. 터널을 지난 뒤 맞이할 찬란한 빛을 내다 보는 믿음의 눈을 열고 오래 참는 것이다. 처한 환경이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모난 내가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이것이 결국 소망을 이루는 통로가 되니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부정은 조급함에서 나오고 감사와 소망은 오래 참음에서 나온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결실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히 10:36).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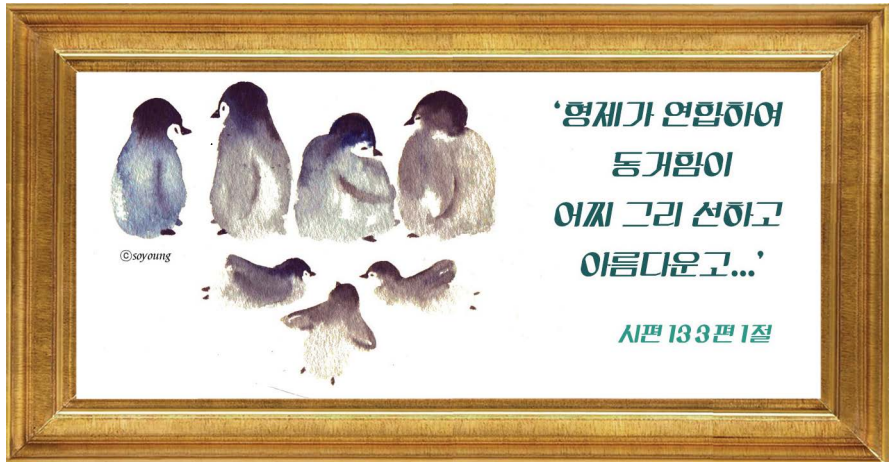
사랑이 나에게

3월 한 달간의 특별새벽기도 이후, 4월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생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심방의 달로 정했다. 이 귀한 일을 진행하자니 벽참과 떨림이 있었다. 심방을 다니다가 우연히 한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림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네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네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네게, 내가 지금 간다.’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에 너무나 감사와 감격이 넘쳤다. 그리고 만나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심방을 했다. 교회에서만 보던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

나보니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환경을 보니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특히 멀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했다. 이번 심방을 통해 깨달은 것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되어 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것이었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들을 잘 이해한다고 자부했었다. 그러나 막상 학교에서 그들을 만나니 ‘나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참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새삼 감사했다면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일까.

이은성

es2563@naver.com



:: 생명의 말씀 ::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삶

전라북도 첫 선교사는 ‘테이트’라는 분이다. 이분은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면 두정리 마을에 가서 전도하였다. 그 마을에서 천석꾼 ‘조덕삼’이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려 예배를 드렸다. 이 집이 차고 넘치니 그 앞에 금산교회라는 예배당을 세웠다. 그 집에는 ‘이자익’이란 머슴이 있었는데 이 머슴은 부산 사람이다. 양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먹을 것이 없어 김제 평야가 있는 김제까지 와서 조덕삼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주인이 탄 말을 끄는 마부의 일을 했다. 주인이 교회 다니니까 머슴도 같이 예배드리고 하다 주인하고 똑같이 선교사에게 1902년 세례를 받았다.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여 1909년에 장로투표를 했다. 당연히 호남의 유지이고 부자인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그는 떨어지고 이자익 머슴이 장로가 되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충성했는지 교인들이 머슴을 장로로 세운 것이다. 떨어진 조덕삼 집사의 태도가 어땠을까? 시험이 들어 교회를 안 나왔을까? 그 다음해인 1910년, 조덕삼 집사는 장

로가 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 5년 동안 뒷바라지해서 목사가 되게 한다. 그리고 금산교회 담임목사로 모시고, 자신은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겼다. 두 분은 은혜롭게 교회를 잘 섬김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이자익 목사는 1924년 총회장이 되었다. 참 귀한 장로님, 은혜 받은 장로님이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어 민주당 대표까지 한 ‘조세영’ 전 국회의원이 이분의 손자다. 우리 예수님을 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다(빌2:6~11). 나를 비우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마23:12).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2018년 표어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자!’ 이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한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35년의 패자부활전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이다.' 늘 말씀으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만난 것과 또한 귀한 목사님을 만난 것이라 믿습니다. 신앙생활 35년이란 세월. 아픔과 같이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꿈이 있기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 교회 유년부에 다니다가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며 좌악 중에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불당집인 줄 알면서도 결혼하고, 시어른 따라 열심히 절에 다니며 두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사우디로 갔습니다.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동진이 5살 때 교회 선교원에 보냈는데, 하루는 아들이 "엄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도하였습니다. 그 말이 나의 잠자던 신앙과 나의 완악해진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송소리에 나는 하염없이 울면서 예수를 찾았고, 성령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 발을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그 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 때부터 밤마다 철야기도하며 낮에는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남편이 사우디에서 돌아와서부터 온갖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 신앙생활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83년에 교회에 가게 되었고, 89년 가을 대구실내체육관 집회 때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90년 여름산장집회 때 남편의 구원을 위해 한 달을 기도하고 집으로 가니 남편은 여자를 만나 살림을 차렸고, 93년에는 사이비 이단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변호사를 사서 이혼소송을 하여 강제이혼을 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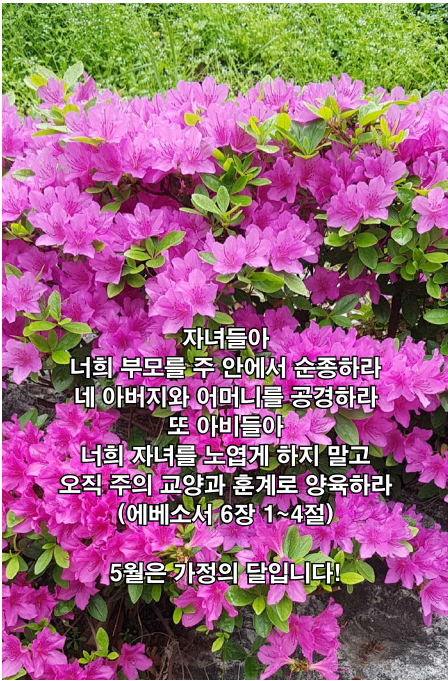
남편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살아온 세월, 몇 번이나 포기할까 마음먹었지만 그 때마다 주님은 꿈으로,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가끔 남편을 만나긴 했지만 전혀 그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35년 세월을 기도했더니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큰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족여행을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이제는 예수 믿겠다는 말을 합니다. 지난 세월, 예수님 신랑삼아 원 없이 주님 일한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천국이 너무 좋아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미련 없이 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남은 인생도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자손들이 모두 다 주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패자부활전이 이뤄지네요. 늘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목사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대구예수중심교회 서성희 전도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총회장 목사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넉넉하고 부요하게 사는 것이다. 이러한 목사님의 소망을 벌써 20년간 듣고 자라난 나는, 언젠가부터 목사님 은혜에 꼭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반드시 부요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목사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전부 찾아보았다. 부와 물질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찾아서 정리했다. 찾아보고 나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 대부분 설교 내용을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단지 이것들을 내 삶에 습관화시키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축복을 받기 위한 방법들은 간단하다. 십일조와 첫열매를 철저히 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하며, 많은 물질을 심는 것, 그리고 특별히 구제를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다. 이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해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매달 수입의 일정부분을 고정적으로 따로 떼어서 선행통장이라 부르는 별도 계좌에 입금시킨 후에 그 계좌를 통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들과 153구제본부 등에 매달 자동이체가 되도록 만들었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는 남을 윤탁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렇게 거의 자동으로 선행과 구제가 가능해지도록 가게 시스템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지 10년이 넘어가고 나 스스로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아직은 크게 부요한 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부요해지는 축복과 은혜의 손길을 충만히 느끼고 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가정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더욱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다. 비단 내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해가며 한걸음씩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가 약속하신 물질의 풍요로움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라 확신한다.

장명훈
jjoshua@hanmail.net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4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위성예배도 위력이 있습니다

오산예수중심교회가 세워지고 위성예배를 드린 지 어언 15년! 초창기 때가 생각난다. 서울교회로 가서 예배드리다가 위성으로 예배드리니 현장감이 떨어져 예배가 적응이 안 되어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기도원 식당 앞 나무 밑에 평상이 놓여있었고 몇 명의 지교회 목사님들이 지쳐서 누워있었다. 그때 총회장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그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차명선이 위성예배만 드러서도 부흥하는데 너희는 왜 위성예배를 안 드리고 부흥이 안 된다고 낙심하여 누워 있느냐!"고 책망하시

는 것을 보고 꿈에서 깨어났다. 지교회가 되어 위성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몇 가지 단점으로 인하여 갈등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산교회에 대한 미래를 암시하는 꿈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받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도 점차 치료받기도 한다. 또 담임목사가 거부반응을 일으킬 요소일 수 있는데, 위성예배로 설교를 들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을 바꾸고 변화되니 목회가 훨씬 수월한 점이 많다.

그리고 위성예배를 드리니 설교의 부담이 적어 조장들과 함께 자유롭게 성도들을 심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좋다. 때로는 원치 않게 목회의 의욕이 상실될 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힘을 주신다. 더욱 감사한 것은 총회장 목사님이 전국 지교회의 영상을 LED 화면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욱 생동감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설렌다. 앞으로도 위성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흥하는 오산교회가 되겠다.

오산예수중심교회 차명선 목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대장암, 왜 급격히 증가하나?

30대인 여성 환자 A씨는 치질이 있었다. 어느 날 직장 검진을 받으며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신청했고, 검사결과 결장암 3기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처럼 건강검진에서 대장암을 진단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가족 중 대장암에 걸렸던 사람이 없는데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는 환자들도 많다. 그렇다면 대장암은 왜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암이라고 하면 유전적 요인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대장암이면 자기도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대장암 환자들 중 유전적 요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는 대장암 환자의 약 15%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염증성 장질환, 비만, 운동 부족, 음주 등이 유력한 발병 인자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장암 발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은 식습관, 바로 음식이다. 실제로 하와이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과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비교한 논문이 있다. 하와이에 거주한 일본인이 본토 일본인보다 지방과 단백질 섭취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선종성 용종, 계실의 발병률도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것이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고 지목되었다.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 연구는 대장암의 발생이 민족적 특성보다 무엇을 먹느냐 하는 생활습관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대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동물성 지방, 즉 쇠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와 베이

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대장암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왜 동물성 지방이 대장 건강에 해로운 것일까?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면 소화를 위해 간에서는 담즙을 만들게 되는데, 이 담즙에서 나온 담즙산이 대장에 머물면서 암을 일으킨다는 이론이 있다. 또 불에 구운 고기들은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이 대장에 머물면서 나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아 발암물질과 대장의 접촉시간을 줄이므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야 한다. 잘 먹고 쾌변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